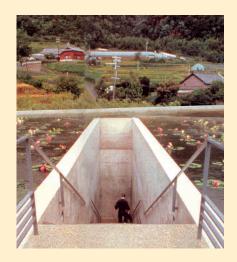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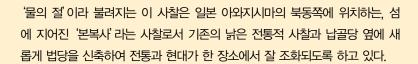
타오르는 목마름으로... 거장안도다다오의물의 절

글 **편집실** 사진 **임채진 교수** _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







이전까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던 벽과 지붕의 아름다움은 사라지 고 건축은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땅 속에 묻혀 있고 수련이 활짝 핀 연못 만이 있는 공(空)의 건축이다.

흰 모래를 밟으며 올라간 언덕에는 긴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고 있다. 나무 사 이 조그만 문으로 들어선 순간, 또 하나의 긴 콘크리트 벽 가장자리의 좁은 길을 따라가게 된다.

걷는 동안, 벽에 가린 채 콘크리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가, 벽 옆으로 난 좁은 길이 끝나는 순간,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과 함께 연꽃이 점점이 피 어 있는 수련의 연못만이 눈앞에 펼쳐지고 법당은 보이지 않는다.

그러나 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못을 가르면서 연못 속으로 진입하는 듯 한 느낌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. 계단을 내려와 법당 안 으로 들어가게 되면, 실외에서의 원형 콘크리트를 실내에서도 재회하게 된다.

주홍빛으로 칠해진 법당으로는 석양이 흘러 들어와 실내를 온통 타오르는 듯 한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. 늘어선 기둥들이 드리우는 그늘과 붉은 빛이 대조 를 이루며 자아내는 광경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이 된다. 마침내 여기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신만의 진실을 돌 이볼 수 있게 된다. ♂

